

국방부 중복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

□ 기자간담회 순서

- 발 : 국방부 복세력 실 인식 교 료 교안 문 (2p)
 - 이 (서강대 법 문대)
- 발 1: 각 군 복세력 교안이 가 는 문 -시민 로? (6p)
 - 박 민 (여연대 공익법센)
- 발 2: 국방부 ‘ 복인식’교 는 민간인 를 선동 는 국가범 물 (10p)
 - 신기 (고양 단설립 근 , 근실 사)
- 발 3: 국방부 복교 기 문 (23p)
 - 이광 (민변)

주발제. 국방부 중복세력 실제인식 교육자료 표준교안의 문제점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 중복세력 교육의 내용과 성격

1) 내 개

- 북세력 교안 소 “ 북세력” 다 과 같이 고 있 .
 - 북세력 = 대 민국 근간인 민 시 경 를 부 면서 북 노 선 무비 로 는 세력
 - 국가 성 부인
 - 사 란 공권력 무력 시도
 - 배 에서 시 기 과 선동 도
 - 북 권과 간 로 연계되어 북 맹목 로
- 그러면서 북세력 “ ” 로 규 고 있 . 그 이 는 아래 같다고 설명되고 있 .
 - 북세력 동 목 가 북 대남 략 목 인 ‘ 반도 ’를 구 기 때문
 - 미군 수 국가보안법 , 이를 연방 일 구 등 북 노선 그대로 고 있기 때문
 - 북 에 밀입북 여 령 받거나 북 에서 남 된 간 에게 섭되어 리 대 민국 괴 려는 이 를 기 때문
- 교안 내 송나라 멸망, 남베 남 멸망 등 국 사례를 설명 고 있는 데, 그 시각이 극 이분법 냉 논리에 입각 고 있 .
 - 사 국가를 무 건 로 대시 는 사고
 - 냉 시대 낡 이분법 세계관에 입각 여 국 사례 설명
- 사실 곡도 보임.
 - 6.25 기 상 에 대 여 남로당 사 란 성, 무 동 야기 등이 인 나라고 설명 고 있 . 그러면서 4.3사건, 거 .순 . 양 민간인 살사건 등 북 과 결 남로당 세력 무 봉기로 규 여 민간인 살사건 역사 성격에 대 심각 곡이 있 .
 - 간 단 사건 로 “ 산 사건” 설명 고 있는데, 산이라는 당 구 고 인 역 거 로 여 무 동 다는 식 로 설명 고 있 . 그러나 산 사건 에서 반국가단 구성 는 1심에서 무 결 받았 며 소심 근 임. 교안 검 공소 에 기 된 것 마 사실인양 소개 로 써 산 사건 실 를 곡 고 있 .

2) 성격

- 북교 군 병 대상 로 이데 로기 사상교 임. 남 과 북 를 이분법 대관계로 바라보고, 북 는 것 대 민국 국가 성 부 는 것이라는 냉 시대 세계관 병들에게 입 고 있 .
- 국방부가 냉 세계관이 입각 여 극 가 긴 사상교 실시 다는 에 문 심각성이 있 .
 - 대 민국 남성 대부분 20대 년 시 에 군대를 다녀 다는 에서 국방부 북교 단 군대내 교 이 아니라 국민 대상 로 사상교 실시 다는 것에서 그 교 성격 바라보아야 .

2. 무엇이 문제인가?

1) 북세력 규 기 문

- 교안에 면 북세력 대 민국 국가 성 부인 고 어 란 술과 사 란 공권력 무력 를 시도 다고 설명 고 있 . 실 내 들여다 보면, 미군 수, 국가보안법 , 연방 일 는 국민들에 대 여 그 러 이 북 대남 략 일 이라는 이 로 북세력이라고 규 고 있 .
- 이에 따라 교안 「 미군 수, 국가보안법 , 연방 일 = 북세력 = 북 ⇒ 따라서 “ 북세력 군대 ” 이라는 논리에 입각 고 있
-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 등 는 국내 근보 세력과 국민들 “ ” 로 간 는 것임.
 - 권 등 꾸 인권단 들 1990년대 이래로 대 민국에 속 로 국가보안법 를 권고 . 17대 국 에서는 국 과반수 서명 로 국 가보안법 법률안이 발 되어 국 에서 논 된 바 있 . 국가보안법 대 민국 법 성 부 는 것이 아니라 려 사상 를 보다 민 로 보 기 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북교 국가보안법 북 대남 략 맹목 로 는 나로 언급 고 있 .
 - 미군 수라든가 연방 일방안 등 견도 그 가 대 민국 성 부 는 것이 아님.
- 북교 내 북 는 것인가 여부에 따라 북세력, 로 규 는 냉 논리에 입각 고 있 . 이는 사상 다양성 이라는 법

기본권보 신 손 고, 이분법 대논리에 따라 남 사 에서 신보 사 상 는 국민들 로 간 여 민 를 심각 게 손 는 것임. 결국 국민 사상 다양성 는 사 를 는 것 로 볼 수밖에 없 . 이는 심각 법 린 로 귀결됨.

2) 군 립성에 관 법 반

- 법 5 2 “국군 국가 안 보 과 국 방 신성 무를 수 사명 로 며, 그 립성 수된다.”고 규 고 있 .
- 국민 권 및 민 국가에서 군 공무 로서 국민 에 대 봉사 를 가 . 군대는 국민에 봉사 는 “국민 군대”여야 법이 명 고 있 . 그런데 교안에 면, 사상 이 로 일부 국민 복세력이라고 규 고 이 를 군대 이라고 로써 국민 로 삼고 있 . 이는 반 법 인 것임.
- 법상 군 립성 군대가 권세력에 여 되는 등 부 간섭 받 았고 본연 임무를 수 수 있도록 보 기 법 임. 법이 보 는 군 립성 다 과 같 내 가 는 것임.
 - 권세력 로부 영 및 개입 배
 - 군 수권 로서 대 령, 국방부, 군 부는 개입 단 로써 군대 립성 보 야 임
 - 군 병 개개인 기본권, 사상 는 개인 기 본권 로서 보 되어야
- 국방부 복교 교안 군 립성 고 있 .
 - 복교 극 된 사상교 성격 니는 바, 이는 국방부 및 군 부가 부 영 로부 군대를 보 야 임 방기 고, 려 군대를 이념 선 로 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군 립성 심각 게 손 는 것이라고 보아야 .
 - 군 립 군 병 기본 인권 무력 시 는 것 인 는 것 아님. 군 립 군대를 설 고 는 국가가 국민 권 및 민 에 따라 군대를 국민에 대 봉사 로 기 여 영 력 로부 군대를 보 야 다는 것 미 는 것이며, 군 립이 군 병 개개인이 는 기본 인권에 대 를 는 것 아님. 복교 병들 대상 로 여 된 사상교 실시 로써 군 병 사상·양심 를 고 군대 립성 손 고 있 .

3) 사상·양심 및 에 대

- 법 19 는 모든 국민 양심 를 가한다고 규 고 있 . 여기에는 사

상 도 당연 된다고 석되고 있 . 사상·양심 는 양심 내
성 , 부 명 강 받 않 권리, 그리고 신 양심과 사상 부에
명 고 실 를 괄 고 있 . 복교 다 몇가 면에서 법이
보 는 사상·양심 를 고 있 .

○ , 국가보안법 라든가 미군 수 등 견 대 민국 법 국가
성 부 는 것이 아니며 그러 견 성과 명 사상·양심 및
에 여 당연 보 되고 되어야 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 복교 교안에 면, 그러 는 리 사 근보 세력
복세력이라 규 고 군대 이라 간 고 있 . 이는 근보 를 는 국
민들에 대 일 선 고에 당 . 국가가 군대를 이데 로기 선 로
고 “ ” 는 것 결국 군대가 국민 에 대 봉사 라는 를 버리고
리 사 에 대 여 사상 성 강 는 결과가 된다는 면에서 국민
사상 및 양심 를 고 있 .

○ 둘 , 복교 군 병 사상·양심 에 대 이기도 . 군대
성상 상명 복식 교 이 이루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실시되는 복교
결국 군 병들이 다양 신념 가 고 롭게 신 견 교 ,
소 도록 보 는 것이 아니라 게 사상 군 병들에게 일방
로 입 는 것 로 귀결될 수밖에 없 .

- 이는 군 병들이 군대생 면서 롭게 신 사상과 신념에 대
여 수 있는 를 게 시 게 됨(과로서 에 대
)

○ 셋 , 교안이 복세력 공공연 게 군대 이라고 규 고 있는 것 보
면, 군 복세력 색 다는 명분 로 군 병 기본 인권인 사상·양심
를 소 가 매 . 이는 군 대 내에서 소 ‘불 사상’ 가 긴 병이
있는 를 끊임없이 감시 고 사 는 사상 시스 당연시 게 될 이 있
며, 더 나아가서 군 생 에 군 병들에 대 여 사상 아 (Outing) 도
는 과도 니고 있 . 이는 법이 보 는 사상·양심 를 명백 는
것임.

발제1. 각 군의 중복세력 교안이 가지는 문제-시민을 적으로?

박주민(변호사, 참여연대)

1971년 미국에서는 이 심리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Philip Zimbardo 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감과 같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가?'란 주제에 대한 연구 기회를 만, 당시 금로는 실험실에서 대단 실험실에는 역부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탠포드 심리 빌딩에 임시로 모감 만들어 놓고 2 동안 '사심리 실험'에 참여자들 모집합니다. 많 일당 내걸었기에 당연히 들 많이 모였고, 엄격 심사와 서 24명 남성 들 려내게 됩니다. 그들 심리 로 결격 사 가 없었고, 거 모두가 대 이상 높 력 가 고 있었습니다. 인들 언 로 이루어 보아도 그들 에서 볼 수 있는 '괜 사람들' 이었습니다.

실 당일, Zimbardo 교수는 경 도로 그들 나 나 방문 수감 고 ' ' 니다. 그들 이러 동이 실험 리얼리 를 높이기 수단이라는 것 알아 고는 별다른 않았습니. 이렇게 모 24명 수들 스탠포드 대 로 송 뒤, 실 들 수 간수 두 그룹 로 나눕니다. 여기서 기 , 이 두 그룹 박사가 어떤 도를 가 고 것이 아니라, 무 로 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독 놈들 간수 그룹 로 배 거나 는 일 없었습니다. '수' 들 2 동안 감금 생 여야 고, '간수' 들 3 교대 8시간 근무 계 아래서 일 였 며, 근무 많 때에는 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 막 로 것 , 24명 실 모두 '이 에 가고 싶다' 라는 말만 면 어느 경 든 실험 단 고 귀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 로 계 되었던 실험 6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상 이 견 수 없이 악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들 모 인 기 과 일삼았 며, '수' 들 에는 인 로 맞섰 만 나 에는 과 기비 에 빠 게 되었 습니다. 수 에 속 있던 몇 명 실 이 끝난 까 심각 심리 상 를 안고 살아야 습니다. 이 실험 보던 Zimbardo 박사마 도 이 수들이 말 로 열등 들이라는 각 아래 내다가 신 못 뒤늦게 깨닫고 급 실험 단시 니다.

여기서 가 미로 것 '간수' 들 동입니다. 그들 에는 간수라는 임무 에 거부감 느꼈 만, 복과 선글라스가 는 권 익명성에 곧 감 느끼 못 게 되었고, 아 러 이렇게 당 는 '수'들 실 로 매맞아 어도 짠 놈들이라 는 생각 가 게 되었습니다. 결 면 기 과 구 를 수들에게 부었 며, 실 로 몇몇 '간수' 들 실 이 일 끝나 몹시 를 내기도 다고 니다. 그들 어 떻게 면 '수' 들 과 로 길 들일 수 있 까 를 고, 근무시간이 끝 나고 나서는 실 경 벗어나서 기 에서 생 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 이구나' 는 생각 들 았았다고 니다. 그나마 양심 인 간수들이 던 선 동 동료들이 수에게 기 때 슬그머니 리를 는 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동료들 거나 았았습니.

수들 반 도 상 었습니. 나 에 인 뷰에서 수는 동료가 간수에게 기 받거나 당 때도 분이 솟는다기 보다는 '명 놈 때문에 내가 고생 는구나, 런 놈 당 도 싸' 라는 생각이 먼 들었다고 니다. 어떤 수들 간수 맘에 들기 심 버리는 동들도 서슴 았았습니. 그리고 가 이 못 부분 , 그 어느 누구도 실 그만두겠다고 말 았았다는 것입니 다. 수 역 말 실 는 실 이 나 되던 달 신발 일 실려 나가기가 만, 그마 도 이 실 언 든 그만둘 수 있는 실 이라는 사실 인 못 던 것입니.

이 실 식 심리 실 이라고 부르기에는 가 있었기 때문에 술 에 등록 되 는 못 습니. 이상 인 샘 이라고 부르기에는 실 들 수가 너무 었고, 어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 이 실 이 심리 실 들 리심사 기 까다롭게 만들기도 습니. 근래에 영국에서 비슷 실 결과에 따르면, 실 들 스 드 감 실 때 럼 '무 식 로' 인 는 았았 다고도 니다.

그러나 이 실 결과는 리에게 많 것 시사 니다. 보 때라면 경받는 아 버 , 다 구인 사람들도 어 긴 여건에 따라 인에게 인 동 아무 거 리낌 없는 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명 식' 가 고 수 있다는 것입니. 리 는 이런 경 를 사실 니다. 나 살 들이나, 광 사 때 계엄군들 모두 그러 임무가 어 기 까 는 그냥 범 소시민에 불과 것입니. 사 람이 어떤 상 에 게 되고 또 그 상 에서 어떤 내 교 받아 내면 느

나에 따라 인 인권 무시 는 비인간 인 를 수 있게 는 무서 결과 를 낳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단순 심리실 이 아니라 일 게 무 고 있는 군 인들 상대로 이루어 된다면, 군인들 상대로 시민들 로 생각 게 고 개심 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실 과는 비교 수 없는 너무나 무서 결과 를 낳 수 있 것입니다. 이에 더 여 그 교 내 이 불명 고 상 이라 면 그 성 더 다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 이 단순 기 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문 입니다. 아래에서는 불명 개념 이 여 부나 부 에 반대 는 사람들 ‘복세력’ 규 고 이에 대 분노 도록 가르 는 각 군부대 복세력 교 료 대 로 문 되는 부분 살 도록 겠습니다.

□2012.4.23. 성된 국방부 명 교 료

34 --> 복 산 대가 안보 식 이 로 야기되며 이는 국방 산 가감 압 박 로 이어 된다고 면서 국가 래 는 것 로 묘사



□ 5군단 복세력교안: “대 민국 갇아먹는 재미 단 복세력”

2 --> 순.미선 관련 , 미FTA반대 , 군기 반대시 등 반 부

시 모두를 북세력 로 묘사

5 -->민 , , 개 , 일, 양심, 근보세력 로 인, 없는 를 대 는 당 세력 로 인식, 미국 등 세를 배 고 국가 영 노력 는 세력 로 인된다고 여 북세력과 근보세력 사실상 구분 수 없다고

□1군단 북세력교안: “불 근실”

9 ~ 13 : 광 병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불 , 미 FTA반대시 , 군기 반대 시 를 모두 북세력 것 로 묘사

□6군단 북세력교안: “ 북세력 실 그리고 리 세”

12 및 13 --> 불 면 배경 로 여 북세력 설명

12 국가보안법 --> 등 면 북세력인 것 로 설명

□1군 사령부 북세력교안: “ 북세력 실 국가안보”

14 등 미군 수 등 는 사람 북세력 로 매도

□ 북세력실 인식 가 문

14 --> 북세력 실 여부, 북세력 실 등에 대 사 가 이 루어 도 앞 상 에서 단언 고 있고, 권에도 근 다고 여 야권이 그에 당 다는 인식 고 있 .

발제2. 국방부 ‘종북인식’교재는 민간인 증오를 선동하는 국가범죄물

신기 (고양 단설립 군 ,
군실 사)

목	
1. 머리말	
2. 내부 적 ‘종북’ 바이러스 은유와 국민보도연맹사건	
3. ‘종북’ 낙인 기 국 ‘부역’ 낙인 기	
4. 불순분 도로 매도당 1980년 5 광	
5. ‘종북’ 이 사 불법선거 통과 군 문사사건	
6. 맺 말	

1. 머리말

2011년 8 새로 임명되는 검 (상대) 임사에서 “이 땅에 북 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 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라고 다. 리는 난 군실 사를 , 남북 분단 이래 ‘국민보도연맹사건’, ‘부역 사건’, ‘11사 단 별사건’ 등 로 수많 민간인들이 억 계 당 사실 인 다. 당시 이들이 받 는 ‘북’ 또는 ‘부역’, ‘이 ’이라는 이 었 니 이 사실 알고 있는 리로선 이 임사가 로 섬뜩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어디 이뿐인가? 이미 널리 알려 있듯이 당시 권 권 국가권력 ‘5·18광 민 ’ 역시 북 에 것 로 몰아가려고 고, 수많 민 도 북에 간 사건 로 았았던가?

검 발언 1년이 더 나 똑 같 이 국방부 교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 과 다르게 민간인 범 를 급 수 없는 군에 기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 다. 군과 민간인 이를 가 알고 있 국방부는 이러 교 이 어떤 결과를 래 는 벌써 어버렸는가?

2. 내부의 적 ‘종북’ 바이러스 은유와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방부는 북세력 ‘배 에서 ’므로’ 쉽게 드러나 았는 ‘악성바이러스’에 비교 다. 그런데 스럽게도 이 독일 나 선 상 괴벨스가 대인 살 선동에 써먹었던 ‘바이러스’ 일 다. 1 세계대 인이 ‘내부 ’에 있었다고 믿었던 늘러는 2 세계대 일 면서 내부

로 여긴 대인들 거 기 이들 ‘바이러스’라고 선 고, 결국 ‘로스’라고 불리는 계 인 대량 살 려었다. 이 똑같 이 국 시기 이승만 부에 러 다. 당시 던 국군과 경 ‘내부 ’이라며 30만에 이르던 ‘국민보도연맹 ’들 살 던 것이었다.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부 수립 국가보안법 반 등 반 부 동 인사를 시 다는 명목 로 던 국민보도연맹 들 국군 시기인 1950년 6 말부 7 말 소 또는 연 여 경로에 따라 순 로 단 살 사건 로, 1950년 6 25일 대 령 이승만이 공 긴급명령 1 『비상사 범 별에 관 별 령』에 시 되었다.

이승만 독 부는 익인사들 기 국민보도연맹 시 다고 나 실 로는 국민 는 수단 로 약 다. 실무 로는 남로당 신 인사들 시 일반 민들 가입 도 다.

이들 일상 로 압 던 이승만 부로서는 상 에서 이들이 인민군 도 것이라고 믿는 것 어 면 당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른 결과는 들에게 보복심만 남겨 었고 이는 려 인민군 에게 빌미를 공 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보도연맹 수는 30만 명에 달 며 이들 대부분 는 군경에 생당 다. 살 도 들 이승만 권력 심이었던 CIC로 보이며 이들 아래 로 각 사단 병대 경 서 사 계가 살부대로서 살에 여 것 로 보인다.

발발 국민보도연맹 감독 검 이 나 이 발발 군 로 이관 되었 며 CIC 병대가 담당 다. 이들 발발과 께 병덕 모 아래 각 경 서에 견되어 보도연맹 리를 도 다. 경 역시 이에 가담 다. 내무부 안국 보도연맹 리 명령 신문 로 각 시도경 국 사 과 에 달 며 이는 다시 각 경 서 사 계로 달되었다. 각 도 단 경 국에는 독 반이 있어 각 경 서가 보도연맹 리를 대로 이 고 있는 감시 였다. 7 9 일 사건이 발생 던 괴산에서는 살 상공에서 비 기로 감시 기도 다는 언이 있다.

군이 도 사건 근 경 를 가 보여 는 경 는 던 국군 6사단 병대에 러 긴 것이었다. 발발 당시 에 둔 고 있던 6사단 병대 는 이 나 소 된 국민보도연맹 들 1950년 6 28일경 로 성에서 살 였다고 다. 이들 경기도 여 , 이 나 북 성, 거 경북 영 , 상 로 였다. 이들이 던 길 모두 국민보도연맹 들 살 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일 국군 비단 6사단만 있었던 것 아니었다. 8사

단, 수도사단, 2사단 등 다른 군단들도 가 단된 동안 방 민들 살 사실이 인된다.

국민보도연맹사건 인 경 에 대 가 알기 어려 곳 서 , 경기, 인 역 이었다. 이들 역에서도 국민보도연맹 들이 소 되어 생되었고 각 무소 수감 들이 단 생되었다는 언이 있다. 인실 에 인된 단 생 경 기 역과 인 역 일부였는데, 1950년 6 25일부 시 된 이승만 부 시에 연 이 국 로 벌어진 사실로 보아 수도권 역에서도 더 많 생사건이 있었 것 로 보이나 여 인 못 역이 대부분이다. 까 사건이 발 생된 것 로 인된 역 인 , 여 , 안성, 시 , 등이며 대개 1950년 7 1 일부 5일 사이에 로 경 에 러 다. 여 는 강 역에서 던 6사 단 병대에 생되었다.

7 로 어들어 경기지역 이남 로 던 군과 경 북 역에서도 대규모 단 살 사건 렸다. 경기 역까 벌어진 사건 생 수가 수십 명 단 였 다면 북 역 사건부 는 수백 명 단 살이 러 다. 인된 사건 가 대부분 던 6사단 병이었 며 그 는 각 역 경 로 인된다. 살 는 순서에 순 로 일어난 것 로 보이는데, 북 역 사건 6 30일 인 에서 시 되어 7 20일 까 이어 다.

남 역 국민보도연맹사건 1950년 6 28일 성에서 가 먼 발생 며 본격 인 비검속 6 29일부 이루어진 것 로 보인다. 살 7 8일 연기 역에서부 이 본격 되기 시 여 7 17일 대 에 이르기까 따라 발생 다. 사건이 발생 것 로 되는 일부 역에서는 구 인 생사실이 인되 았다. 안에서는 도 급 국민보도연맹 들에 대 살사실이 인되 만 일반 민들 생사실 인되 않는다. 그리고 아산 민들 양 기리 냇가 또는 성방면에서 살당 다는 언이 있 나 더 이상 언 보되 았았다. 양 민들 남양면 리 싸리 고개에서, 서 민들 보령 이어나 에서 생되었다고 는데 구 인 생일 는 인되 않는다.

북 역에서는 7 6일부 나 나는데, 본격 인 살사건 7 16일 익산에서 부 나 나며, 7 25일 수에 이르기까 경 순서 대부분 일 다. 가 는 로 각 경 서 소속 경 관들인데, 무소사건 경 에 병대, CIC 등 군인들이 가 인 경 는 인되 않는다.

남 역 사건 7 7일 성에서 인된다. 안 역 경 이 도 역 등 떠나는 7 22일경 사건이 로 발생 며, 다 날인 7 23일 인민군 로 변복 나 경 부대가 들어 또 다시 살 다. 생 들 대부분 경 에게 생된 것 로 경 가 순 로 이루어 았았 므로 살 역시 순 로 나 나 았는다. 군인들이 개입 경 로는 나 에서 인되는데, 소속부대 는 5사단 20연대였다.

경북 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사건 발생일이 았 며, 국군 3사단

23연대 개입 사실이 많이 인된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일 , 남 역과 비슷 게 나 하는데, 가 먼 사건이 발생 역 당시 강 도에 속 던 근 역 로 7 5일이며 8 순까 계속되었다. 대구, 경 도는 인민군이 령 못 에도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나 났다.

경남 역 대부분이 미 령 역이었 에도 인민군에게 령 것이라는 이 로 생된 민들이 많았다. 이 사건들이 국군 에 벌여 던 것과 달리 낙동 강에 선이 성된 8 몇 번 시기에 로 사건이 발생 다. 시기가 되어 나 나는 것 로 보아 이는 이 역 담당 던 고 일관된 명령에 것 로 보인다. 령당 역과 미 령 역(거 , , 밀양, 김 , 산, 양산, 부산) 로 구분되는데, 미 령 역사건 경 는 7 과 8 에 벌어진 사건이 성격 달리 는 경 이 있다. , 7 사건 생 는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들로 보이는 반면, 8 사건 생 는 별도로 연 된 반 부인사였던 것 로 보인다. 이는 거 사건 관련 료인 「강 봉 등에 대 군법 결심사 료」에서 나 난다. 사건 9 18일까 계속되었 며, 가 에는 CIC, G2, 병대, HID 등 보기관이 동 된 것 로 보이며 는 CIC가 것 로 단된다.

3. ‘종북’ 낙인찍기와 한국전쟁 ‘부역’ 낙인찍기

국방부 ‘ 북’ 낙인 기는 법 에 대 이다. ‘ 북’ ‘따른다’는 것 심리 기 이다. 비록 따르는 그것이 북 이 될 라도 이것이 신과 나일 뿐이라는 것에는 변 이 없다. 리 사 는 마 속 알 수 있다고 믿는 만에 러긴 비극 수도 없이 갖고 있다. 가 대 인 사례는 1950년 10 29일 김 룡 동수사본부 언론사 인 뷰이다. 그는 부역 라며 벌 인사 들 상당수가 익인사들이었다고 시인 다. 그런데 이 담 가 발 된 때는 이미 수 만 명 인사들이 군경에 살 당 뒤였다. 이 역 개 에 불과 단 말인가? 심리과 교나 신념과 마 가 로 범 영역이 아니며 법상 보 대상이다. 그런데 이를 거 다는 것 곧 물리 생명 거 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교 안 ‘ 북’ 로 낙인 시민들 ‘ 거’ 겠다는 ‘ ’ 감 고스란 담고 있는 것이다.

국군 수복과 부역자 처리

인민군 령 역에서 인민군 에 령 다는 를 받 민간인들이 9.28 국군 수복 국군과 경 에 법 없이 살당 다.

1950년 9 인민군이 각 고 국군에 실 가 복되는 순간부 국군과 경 인민군 령기 인민 간부, 인민군 영대 석 , 인민군에게 식량 공 민, 인민군에게 달구 나 배 갈 수송수단 공 민들 연 당

살다. 어 다 이 생 들 법 에 설 수 있었 나 이 도 1심에서 ‘사’
'이 되어 어갔다.

북 역에 군 국군 수기 등에 따르면, 북 역에서도 이러 가 있었
이 인된다. 그 뒤 1.4 시기인 1950년 12 인민군 령기 부역 를 받았던
민들과 그 가 들이 생당 였 며, 2 수복 던 1951년 2 경 또 다시 부역
를 받던 민들이 생되었다.

생 3개 에 대 보복이었던 부역 (附逆者, collaborator) 살 가
에게나 에게나 마 같 것이었다. 인 상륙 에 여
국군 병대 3대대 11 대 상사 강씨는 “인 상륙 에서 일 기억에 나는 것
시가 에 돌입 서 경동 구 에 어여쁜 여 가 반가 에 넘 서 대 민국만세를
부른다는 것이 인민공 국 만세를 불러서 눈물 머금고 사살시 일이었다.”라고
언 였다. 만 이 언 당시 기 로 보아도 이 기 어렵다. 인 에 상륙
병대는 던 상 이 아니라 부역 를 색 던 시기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살
리 에 불과 다.

그렇다면, 국 시기 인민군 령 3개 동안 어떤 부역 까? 역마다 약
간 이가 있 만 이남 역에 대 인민군 는 7 시 되어 9 끝났다. 2개
남 속된 경기 역부 1일에 그 던 영 역까 다양 만 대부분 구
성 동 시 마 끝이 났던 것이다. 그러니 “날알만 세다가 말았다”거나
“도무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개 이 시기 이남 역 민들이 받 가
규모가 던 는 군 이었다. 대 인 사례를 에서 수 있다.

에서는 인민군 빠른 진격 로 대부분 민들 난 도 없었 며, 인민군
령 선 된 인민 등이 소에 알고 내던 민들이었 므로 류된
민들 대부분 인민 일에 수밖에 없었다. 가 과 역 각 리(里)
인민 역 대개 동일 다고 단되는데, 당시 어룡리 인민 는
(1) 무상몰수 무상분배 개 (1950년 7 25일 실), (2) 양곡 수 (1950년 8
5일), (3) 군 23명 동 (1950년 8 7일), (4) 인민 경비 수 등 역
였다.

이승만 부는 9.28 수복 부역 리는 모두 법 인 에
것이라고 밝 다. 이는 결 분 등에 불법 인 없었다는 것인데,
만 결문 등 공식 문서에서는 ‘인민 로 부역 다가 아군 안대에
'이라고 고 있어 불법 로 살당 사실 인식 고 있 보여 고 있다.
결국 민간 안 던 국가가 이들에 불법 살 를 알고 있었
면서도 이를 공식 인 국가 별 로 여겼거나 또는 어도 불법 로 여기 않
고 있었 이 드러내는 것 로 석된다. 내무부 안국 등에서 성 문 들에 따르
면 9.28 수복 부역 는 55만 명이였다고 며, 이 에 리된 사
람들 2만 명이였다. 그렇다면 에 리되었다는 사람들 53만 명
어떻게 되었 까?

미군 CIC를 비롯 여 국군, 경, 검 등 이미 1950년 8 부 인민군 령 를 수복 경 어떻게 부역 를 리 관계 를 가 다. 미군 CIC는 1950년 9 20일 야 부역 명단 성 기 시 며, 이승만 1950년 9 22 일 “공산당이였다면 부모 간이라도 서 말고 단 야 것”이라고 연설 다. 이미 미군과 이승만 부는 ‘수복 부역 리 방안’ 이미 비 며, 이 별어 모든 비극이 비된 각본에 따른 것이었 수 있다. 동수사본부 검사였던 도는 1950년 8 부산에서 인민군 령 를 수복 경 부역 를 어떻게 리 것인 결 기 관계 를 가 다고 언 였다.

미군 역시 군 수복 앞두고 부역 리 방안에 대 비 고 있었다. 1950년 9 20일 441 CIC Team이 미8군 G-2에 보고 「Counter Intelligence Target Information」에는 서 시 인민 이승엽 비롯 여, 소, 김규식, 여 등 국, 신, 송 성 등 국군 군, 김 석 내무부 관 등 38명 대상 로 기 고 있다. 1950년 9 30일에는 경기도를 비롯 여 강 도, 도, 라도, 경상도 이남 역 인민 379명 명단 리 여 보고 고 있다. 1950년 10 4일에는 국농민, 국노동 등 24개 익계열 당 및 단 이름과 설명 리 여 보고 고 있다. 목록 머리말에는 “다 익 구성 과 도 국군사 안 므로 더 사 기 되어야 다.”고 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당과 농민, 노동단 에 민 민 일 선, 민 여성동맹, 민 애국 년연맹, 민 생연맹, 문 가동맹, 인민, 국민보도연 맹 등이 기 되어 있다. 실 국군 수복 생당 민들 대부분 인민군 령 기관 또는 그 산 대 과 관련성 빌미로 생당 이 인된다.

부역 살사건 인민군 령 를 수복 던 국군에 러 다. 당시 국군 3사단 보 관 겸 민사부 이었던 신동 는 “ 격 라가는 곳마다 애국 년들이 부역 들 아 놓고 리에게 결 소 만 사단 엄명 로 모두 송, 법 단 습니다.”라고 언 다. 과연 그랬 까? 영 등 경남 역 에서는 국군 수복 인 1950년 8 20일경부 부역 를 받 민들 살 사건이 있었다. 상, 안동, 인 등 경상북도 역에서는 1950년 9 20일경부, 경 기도 역 9 30일경부 수복 던 국군에 러 인 민간인 생사건이 인된다. 이 시기 살사건 국군이 수복 는 시 발생 므로 수복 는 국군 인 경로에 따라 인된다.

국군이 수복 각 역에 경 이 공식복귀 본격 인 부역 살이 인 되었다. 각 경 서는 사 계를 심 로 인민군 령 부역에 여 던 민들 동 여 부역 를 색 다. 당시 복귀 경 대부분 여 누가 부역 에 가담 는 알 수 없는 였 므로 방법이였다. 각 서는 대개 3~5명 식 경 관이 근무 며, 그 산 에 경 10여 명과 대 년단 등 심 로 안대 들이 동 였다. 대개 경 에게도 기류가 급되었 며 안 대 들에겐 몽둥이 대만 다. 만 급박 상 이라고 단 경 안

대 에게도 기가 급되었다. 경 근무 언에 따르면, 각 경 서 사 임 경 서 에게 결 분에 대 사 보고 수 있었 므로 사 임 단이 결 로 다.

연 된 민들 세 등급 로 구분되었 나 대부분 등급과 관계없이 임 당 다. 경 서 단 살사건 로 가 밀 게 규명된 고양경 서 사건 경 180~200여 명이 생되었고(발굴된 골 대 골 기 로 153구였 며, 대 골이 120개였던 것 로 보아 180여 명이 생되었다고 된다) 이들 대 부분 부역 민들 가 이었던 것 로 인된다. 고양 역만 로 보아도 각 서에서 생된 민들 감안 다면 생규모는 그 이상이며, 진실 사 결과 역시 상당수 역에서 고양 생규모 이상 를 입었 이 인된다. 신 사건 로 국 진실 사결과이긴 만 이를 대로 부역 를 받아 결 분된 생 규모를 리 면 2만명이 넘고 있는데, 세 내 다 < 1>과 같다.

< 1> 진실 사결과 9·28수복 결 분된 부역 사건 생규모

역	시군구	결 분		비고
		결 분	별	
서	서	5,000		미 국무부 보고
인	인	150		덕 도 등
		500		동인 경 서
		800		인 경 서
경기	가	130		가 경 서 등
	강	430		강 석모 문
		370		양사면 등
	고양	200		금 굴
		300		강변 등
	광	30		동부 서 등
	김	600		여 등
	남양	460		진 진건면
	양	20		면
	양	560		떠드령산 등
	여	600		여 교 등
	인	350		송 고개 등
		200		석골 등
		20		북 서
		30		무력고개
성	30		사 등	
강	강릉	20		구 개별골 등

역	시군구	결 분		비고	
		결	분		
	삼	130		드림 등	
	속	20		부 리 등	
	양양	1		산면	
	영	226		내무부업무 시	
		30		양안 등	
	인	7		백골병단	
	관	5		신북면	
		1		경 서	
		100		경 서	
	성	5		성경 서	
북	보	30			
	성	10		성경 서	
		67		대소면 2	
	근	30		봉 산	
	100		가덕면		
남	논산	1,223		경 서연 사	
	당근	680		당근경 서 등	
	보령	800		대 경 서, 이어니 등	
	부여	12		부여경 서 등	
	서산 안	1865		서산 메 골, 사기실	
	서	120		돼 고개 등	
	아산	800		성 산 등	
	연기	4			
	산	780			
	안	210		산 서 등	
	양	2		짜리	
	성	650		불 고개 등	
북	고		89	무 면 립	
			1,400	11사단 사건	
		40		고 경 서 등	
			190	별경	
	군산	20		서	
	금산	300		비비미	
	김	20		금산 서	
	남	20	180	남 경 서	
	무			5	11사단
				80	8사단
부안		4	경 별		

역	시군구	결 분		비고
		결	분	
남	순		664	11사단(도)
			95	경 (도)
			30	8사단(도)
			70	동상면
			70	8사단
	임실	20		임실경 서 등
			250	경 별
			400	11사단
			4	8사단
	수	200		수경 서 등
		20		소성 서 등
			110	11사단
			32	경 별
	진안	200		진안경 서 등
			8	경 별
	강진	50		강진경 서
곡성	40		곡성경 서	
광산		70	몰몽 등	
광양	100		광양경 서	
나		140	동 교(11사단)	
		230	다도면	
	30		문 서	
		170	경 별	
	60		2009 가발	
담양	90		담양경 서 등	
		10	경 별	
		100	11사단	
무안	100		무안경 서 등	
신안	150		비금 서 등	
여수	60		애기섬, 여수경 서 등	
영광	30		영광경 서	
		27	11사단	
		180	경 별	
영암		350	영암 생사건	
	6		영암경 서 등	
도	300		도경 서 등	
		60	나 경 부대	
	64		기	

역	시군구	결 분		비고	
		결	분		
경북	성	30		성경 서	
			150	삼계면 고산	
			250	11사단	
			20	경 별	
		30		경 서 등	
			40	경 별	
	진도	330			
		100		고군 서 등	
			330	11사단 사건	
			59	11사단수복	
			2,000	불갑산 (영광)	
	순	20		도암 서 등	
			180	11사단	
			13	8사단	
			50	경 별	
	남	900		부역	
			42	나 경 부대	
		80		기	
	경북	대구	10		대전사 등
		고령	4		고령경 서
구미		3		강변	
군		20		군 경 서	
김		50		김 경 서 등	
봉		4		량산	
상		24		공성면 등	
성		600		선 리 강변	
안동		200			
영양		18		입암면	
		10			
진		320		시골 등	
성		5		밭 등	
송		15			
경남	고성	30		고성경 서	
	거		728	11사단	
	산	20		산 경 서 등	
			353	11사단	
			6	8사단()	
	양산	20		양산경 서	
진	20		진 경 서		

역	시군구			비고
		결 분	별	
	영	800		남동 고 등
	양		370	11사단
		5		
		24,296	9,609	

4. 불순분자와 폭도로 매도당한 1980년 5월의 광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자, 신군부는 국가 권력 약화 기 '12·12 군사 변' 일이다. 이에 반여야인사 야당 '계엄 민이'고, 국수 많대생 민를 구다. 민에 대 열망이 사 반에 결 분 되던 '80년 봄'이었다.

1980년 5월 10일, 23개 대대로 구성된 국생단 '비상계엄 각, 두·신 등 신당 간' 등 담결문고였고, 거리 시를 계다. 이런 시 감 두 양 보부 북이 남 락 보인다는 이 로, 비상경계 세 돌입 명령 내렸다.

시는 서 뿐만이 아닌 광에서도 개되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군 라남도 광 각 대 약 고 생들 등 교를 였다. 이에 분 남대 교 생들과 비상계엄군간에 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를 당 생들이 속, 생들 '계엄', '교령'를 며 광 심대로인 금남로로 간 였다. 이를 간압 는 과 에서 계엄군 생시 대를 는 일반 시민들도 구 고 였 며 그 결과 많 부상 연 들이 발생 였다.

비상계엄 소식 들 대 생 100여명이 남대교문 앞에 모여 시를 다. 선대 교 및 남대 교에 둔 고 있던 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는 '려 가'라는 암 명 에 따라 둔 경비를 일부 병력 대 구내에 남겨 놓고 금남로로 이동 여 계엄 반대를 는 시 대에게 무 별 력 둘러 시 대를 산시 다. 이에 생들 반발 며 광 도심 로 겨가 시 를 계속 였 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 로 생들과 일반시민 가리 얹고 살상 다. 이에 분 노 광 일반시민까 생들 시 에 류 기 시 고, 20일에는 시 사 들 량 시 가 이어 며 시 대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수세에 몰린 계엄군 시 대를 무 별 발 (20일 밤 광 역, 21일 낮 당시 남도 앞)를 시 나, 시 대는 이에 굴 앉았다. 민 구 시 를, 언론들 이 신군부 거 에 영 '불순 분 도들 난동' 로 보도 데 격분 시 대는 광 MBC방송국에 불 르고, 광 시 거 다. 또 21일에는 비군 부대 무기고를 열어 들고 무 면서 계엄군에 대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시민군 남도 건물안 계엄군 병력과 교 계엄군병력이 광 시 광 로 각 에 라남도 도 령 다. 계엄군에 부 신과 교 이 단 된 상 에서 이들 계속 서 계엄 민 구 인사 석방 구 면서 시 민군대 를 여 계엄군과 상에 나서는 , 시민군 로 도시 안 담당 다. 무 부상 였던 이 기간동안 광 시민들 발 로 서를 나갔 며 대 상 는 26일까 계속 이어 다. 그래서 일부 식인들 광 민 당 시 광 를 시민들 가 실시된 리 된당시 리에 비 기도 다.

27일 새벽 군인 25,000명 입 계엄군 근압 이 시 되었다. 광 시내로 들어 계엄군 27일 새벽, 끝까 남아 던 시민군 대부분 살 고 라남 도도 령 면서 근압 마무리 다.

5·18 광 생-시민 동에서 생 1988년 6공 국에서 공식 로 발 바에 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었다. 그 생 6·25 이래 대 생 를 낸 사건이었다. (: 두산백과)

5. '종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군의문사 사건

국방부 「 북세력 실 인식 가 /문 」, 7 , 12번 “2012년 김 대남 명령 1 는 (남 대선)에 극 개입 라”였다고 고 있다. 만 대선 앞두고 ‘ 북’교 실시 고 있는 는 국방부가 아닌가? 리는 1987년 12 대 령선거를 앞두고 군 선거개입에 다 살당 연관 상병 았고 있다. 2 기 문사 근상규명 보고서가 이 사건에 대 기록 고 있는데, 이를 약 면 다 과 같다.

1987년 대통령 선거와 정연관 상병의 죽음

1987년 대 령선거를 앞두고 대 신교 시간에 부 에 대 교 면서 여당 보 당선 성 강 고, 개별 면담 대 들에게 여당 보 를 도록 도 다. 이어 각 내무반 에게 여당 보를 도록 교 시 것 시 다. 일이 되 군 간부들 기 1번만 보이도록 기 를 어 보여 거나 상 에 놓고 기 게 거나 기 를 인 였다. 이는 명백 부 선거였다.

그럼에도 야당 보에 기 가 인되 대 내무반 과 병 들 불러 “야당 놈이 3명이나 나 다”며 심 게 꾸 였다. 일석 내무반 “너 들말야, 사 교 대로 여당 았고 야당 였나. 야당 놈 손들어” 라고 면서 다. 를 마 고 고 병들이 내무반 로 들어 다시 “군대에서 시 면 시 는 대로 너 들 멋대로 냐”고 백병 이 반 모 두를 일어나게 ‘ 연관’ 상병 에 이르게 구 가 시 됐다.

6. 맺음말

무엇이라고 더라도 군 입 에서 북세력이 대 민국 내부에 살고 있는 민 간인임이 분명 다. 에 대 경계보다 이를 따르는 내부 민간인 공격 는 는 범 에 다름 아니며, ‘ 북’세력에 대 다는 빌미로 병에게 국민 도록 선동 는 역시 범 에 당 것이다. 그리고 이런 는 병들에게 생명 경시 를 불러일 뿐 아니라 병들 사이 관계를 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 것이다. 그리고 국가 수 를 가 강력 물리력 보 고 있는 군이 병사들 상대로 민간인 를 선동 는 교 단되어야 다. 민 공 국에서 국가권력 국민 격이 없다는 것 명심 야 다. 냐 면, 당신 들이 누리는 권력이 국민 로부 임받 것에 불과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를 망각 말아야 다.

발제3. 국방부의 종북교육의 기타 문제점

이광철(변호사, 민변)

1. 서 - 분석의 틀

- 국방부 북교 발생근 이명박 부 대북 과 긴밀 관련 맺고 있고,
- 그 문 에 대 분석도 결국 이명박 부가 인식 고 있는 북 관이 시사 를 것 로 봄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경과와 북한관

- 비 개방 3000(대선에서 공약)
- 인수 시 , 일부 검
- 부 범 ‘기다리는 것도 ’이라면서 사실상 북 붕괴 기대감 면서
- 북 에 대 무시, 룡 노골 로 명
- 그러던 에 안 사건 발생, 5.24 , 연 도 격사 로 이명박 부 대 북 사실상 로 귀결
- 면 이명박 부에게 북 대 력 동반 , 일 이루어야 상대 라는 인식보다는 개발 일삼아 국 사 를 어 렵게 는 깡 국가(rogue state)이며, 내 모순 로 몰락, 붕괴 단에 불과 였

3. 국방부의 종북교육의 문제점

가. 국방부 북교 역시 이러 이명박 부 난 북 관, 대북 에서 연 것 로 볼 수 있는바, 그 내 다른 발 들께서 상세 이야기 바이니 생 략 기로

나. 그 문 에 대 여 검 면, 다 몇 가 로 리 수 있

1) , 국가를 보 는 강력 물리력 가진 군 북교 군 립

- 성, 군인 양심, 사상, 등 법 가 손 고 있
- 이명박 부 국방부는 군인 단 기계 부속 로 보는 경 이 다분
 - 불 서 사건, 북핵 문, 에 대 령 비 군인에 대 역 결 사건 그 극명 들임
 - 북입 시민이라는 문명사 관념 수 고, 국가안보도 법 가 수 는 에서 긴 기 바람. 국가안보 범 내에서 법이 를 갖는 가 도 상이 군에서

2) 둘 , 난 이 부 대북 이 이러 당 교 가능 고, 다시 이런 당 교 이 남북관계를 도를 나 아 돌이 수 없도록 는 악순 보이고 있

- 대선 보들 누구나 도 이가 있 뿐, 난 남북관계를 복 겠다고 약속 고 있는데, 국방부가 북교 단계까 나가게 되는 경 남북관계에서 가 대 가 긴 군사분야 대 가 복 되기는 난망

3) 셋 , 대선에서 속 별 긴 는 보가 당선될 경 , 군 북 결 세력이 이에 반발 여 군에 대 문민 이 도 에 면 려가 기될 수 있

- 군에 대 문민 어떤 경 에도 고 게 수되어야
- 그러 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 고, 어떤 모습 로 교류 력, 나아가 어떤 방 과 방법 로 일 이루어갈 에 대 여는 국민들 사에 따른다는 세가 군에 구됨

4) 기 , 대선에서 이 문 가 이슈가 될 수 있 것이 만, 북 이슈는 남남갈등 문 이므로, 새누리당도 게 실익이 된다고 보 는 앓는 것 로 보이고, 북 이슈 는 NLL등 영 기, 남북밀약 등에 되었고, 앞 로 문 인 보로 단일 될 경 이 문 가 레 더 이슈가 될 것 로 보임